

病名別 胃腸病

李錫熙



本稿에서는 洋醫學의 診斷에 의한 病名에 따라서 韓藥을 쓰는 것을 말하기로 한다. 韓醫學에서는 胃아토니 胃炎 胃下垂 胃潰瘍 등의 病名이 없고 다만 陰陽虛實과 症狀에 따라 處方用藥한다

韓方家 趙憲泳先生은 洋醫學과 韓醫學은 그 學問의 立場이 달라서 관찰의 方面이 다르고 또한 治療의 方法도 다르므로 洋醫學의 診斷에 의한 病名만으로 韓方用藥을 한다는 것은 불완전하고 절대적이라 할 수 없다. 다만 病名은 참고로 하고 證의 陰陽 虛實에 의하여 用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胃炎은 胃粘膜에 炎症이 생긴 病이니 胃粘膜을 刺戟하는 藥 즉 辛溫性의 藥物은 用藥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당한 學問의 理論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理論에만 따라서 證의 여하를 불문하고 胃炎에는 辛溫性인 白朮 陳皮 厚朴 木香 乾薑 半夏 砂仁 草果 薤香 등을 除去한다면 治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다음의 病名別 用藥은 韩方의 理論과 합당한 處方 또는 본인이 경험한 用藥으로 有效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간추려 본 것이다

1. 胃弛緩症(胃아토니)

胃가 無力하고 소화력이 부족한 것이니 俗稱 속이 찬것 즉 胃寒症으로 생각된다 원인은 陽虛貧血에 있고 日氣가 음산하고 기분이 침울하거나 過食한 때 더욱 심하고 症狀은 飲食을 조금만 먹어도 속이 무겁고 거북하며 胃가 가득차 있는 것 같고 복부를 두드리거나 움직이면 振水音(출렁출렁) 소리가 나오고 暖氣가 있고 反胃도 되며 식후 10여 시간이 經過되어도 消化가 되지않고 때로는 便秘도 兼하는 수도 있다

급성 또는 만성을 막론하고 胃腸疾患은 陽虛多寒한 사람이 많으므로 대체로 寒冷한 飲食이 不利하고 추위를 많이 느끼며 手足을 차게해도 消化不良인 사람이 있고 秋冬節에 생밥이 입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腹痛과 泄瀉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것을 살펴보면 胃寒證이라 생각된다

〈用藥〉

- 六君子湯(益氣 补脾 消痰) • 溫胃飲(補脾 溫中 整腸) • 胃關煎(補腎 益陽 整腸)
- 五福飲(補五臟氣血) • 五味異功散(益氣 补脾 和中) • 理中湯(補脾 益陽)
- 理陰煎(潤血 益陽)

〈攝養〉

- 飲食量을 減少하고 야물고 질긴 것 등을 삼가고
- 몸을 溫和하게 保溫하게 하고
- 물도 적게 마시게하여 胃를 편하게 함

2. 幽門狹窄症

胃에서 十二脂腸으로 내려가는 부위가 縮約된 것이니 噌膈症의 한가지 증상이며 원인은 陽虛 貧血 氣滯 等으로 인한 腸의 機能障礙와 癌腫潰瘍 等 幽門部의 形態的 異變을 말한다

〈用藥〉

- 當歸養血湯 • 二陳湯 加 厚朴 3g 丁香 2g

3. 胃下垂症

胃가 正常位置보다 아래로 처져 내려간 痘으로 원인은 陽虛 氣虛로 본다

〈用藥〉

- 六君子湯 • 溫胃飲 • 五福飲 • 理中湯 • 補中益氣湯 • 十全大補湯 • 人蔘黃芪湯

4. 胃擴張

胃의 筋肉이 擴張되어 커진 것을 稱하니 胃아토니 症狀이 심하게 되어 發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用藥〉

- 六君子湯 • 溫胃飲 • 五味異功散 • 理中湯 • 補中益氣湯 • 胃關煎 • 十全大補湯
- 人蔘黃芪湯

5. 胃炎

胃粘膜에 炎症이 생긴 痘이니 속칭 滯症인 것이나 원인과 證狀은 일정하지 않고 그 痘態를 봐서 急性胃炎과 慢性胃炎 神經性胃炎 等으로 구분한다.

(1) 急性胃炎

원인은 暴飲 暴食(過食) 腐敗 不潔한 飲食 過熱 過冷飲食 기타 다른 痘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胃를 직접 害하는 것 等이다

〈用藥〉

- 溫胃飲 • 理中湯 • 人蔘黃芪湯 • 平胃散 • 蔘朮健脾湯 • 和中湯 • 薑香正氣散
- 香砂平胃散 • 大和中飲 • 小柴胡湯(三禁湯)

(2) 慢性胃炎

평소 飲食에 對하여 攝生이 옳지않고 각종 疾患으로 인하여 全身의으로 虛弱해져서 소화력이 감퇴된 때문이다.

〈用藥〉

- 理中湯 • 十全大補湯 • 人蔘養胃湯 • 補中益氣湯 • 大和中飲 • 對金飲子
- 蔘朮健脾湯 • 和中飲

(3) 神經性 胃炎

스트레스로 인한 것, 神經過敏 神經衰弱 不眠症 충격 비애 등으로 인한 것.

〈用藥〉

- 歸脾湯 • 蔘朮健脾湯 • 溫膽湯 • 十味保和湯 • 養血四物湯 • 清食清鬱湯

6. 胃酸過多症

韓方의 舌酸이다. 원인은 體質的인 영향과 飲食物의 刺戟 등에 의하여 發病하고 一說에는 胃寒이 원인이라고 하였다. 空腹이 되면 胃脘이 쓰리고 不便하며 飲食이 들어가면 쓰린 感이 경감되고 혹은 胃酸이 입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吐酸이라고도 한다

〈用藥〉

- 溫胃飲 • 安胃飲 • 二陳湯 • 六君子湯 • 朮苓湯

7. 胃酸症

胃酸分泌의 不足症이니 胃酸過多의 反對症狀이다. 원인은 體質의인 것, 全身의衰弱精神的不安 不快 스트레스 등으로 胃의 機能이 衰退 저하되어 식후 胃脘痞悶 嘘氣 惡心 嘔吐症 등이 있고 때로는 滑泄를 겪하는 경우도 있다.

〈用藥〉

- 五味異功散 • 补中益氣湯 • 人蔘黃芪湯 • 人蔘養胃湯 • 黃芪健中湯
- 藿香正氣散 • 十全大補湯 • 不換金正氣散

× 註 本人은 人蔘養胃湯 人蔘養榮湯 人蔘黃芪湯 중에서 택하여 쓰고 男女老少를 불문하고 艾葉(쑥)을 뜯어 생즙을 내어 마시게 한다 十中八九는 治療된다

8. 胃潰瘍

胃炎 胃酸過多 等이 심해지거나 자극이 심한 음식 심한 충격후로 胃壁이 헐고 파이 는 痘으로 胃脘이 심한 경우 左肩背까지 당기고 아프며 때로는 胃出血이 되며 便秘가 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검은 피가 섞인 滑便을 보는 경우도 있다.

〈用藥〉

- 益之散 • 內消沃雪湯 • 海山安胃湯 • 蔘朮健脾湯

9. 胃痙攣

발작적으로 극렬한 胃痛이 있으니 衰弱한 사람, 신경질적인 사람이 感情의 激動 氣候의 急變 음식의 잘못 등으로 發病하게 된다

〈用藥〉

- 治中湯 - 理中湯 加 青皮 陳皮 各4g • 藿香正氣散
- 补中益氣湯 加 檳榔 木香 各3g • 不換金正氣散 • 叙和飲 • 胃基湯 • 六和湯
- 补中益氣湯(本方) • 五福飲 加 橘皮 4g

10. 胃癌

韓方의 病名은(胃胱癰) 噎膈症의 범위에 해당되지만 胃胱癰에 胃癌이 아닌 胃의 外科的 疾患이 있고 噎膈症에도 胃癌의 症狀이 아닌 것이 있으니 이를 잘 分別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用藥〉

韓方으로 有效한 것이 있을 것으로 본인은 믿고 있다. 다만 우리들이 완전한 治療藥을 究明하지 못했을 뿐이다.

- 內消沃雪湯 • 叙和湯 • 清和湯 • 理陰煎 • 蒼朮仁湯

〈傳來民俗藥〉

- 까치(鵲)의 배를 갈라 창자를 제거하고 그속에 生漆을 넣고 달여서 마신다.
- 딱따구리(啄木鳥)를 불에 구워서 作末하여 溫水로 調服한다.

- 가지꼭지(茄蒂)를 陰乾하여 달여 마신다.
- 모시뿌리를 달여서 마신다
- 표고버섯과 蒼朮仁을 各同量으로 하여 茶를 煮여 마신다.

11. 腸炎

粘液便 泄瀉 또는 便이 不順하고 腹痛 腹鳴 後重等이 있고 急性腸炎과 慢性腸炎으로 구분된다.

(1) 急性腸炎 : 腐敗 過冷 過食 過飲 또는 未熟한 果實이나 술 등을 먹거나 마신 후 傷하게 된 때, 或은 居處를 冷濕하게 한 것. 또는 다른 疾患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 등이 있다

〈用藥〉

- 補中益氣湯 • 六神湯 • 八桂散 • 胃關煎 • 胃苓湯 • 藿香正氣散
- 理中湯 加 赤茯苓 4g 厚朴 3g • 導滯湯 • 地榆散 • 寧胃散 • 錢氏異功散

(2) 慢性腸炎 . 全身的 衰弱 飲食不調攝 冷濕한 居處 등이 원인이다. 下泄 痢疾 虛痢 久痢 濕泄 下腹痛이 時時로 있다

〈用藥〉

- 胃苓湯 • 薑苓湯 • 錢氏異功散 • 胃關煎 • 藿香正氣散 • 六神湯

12. 腸結核

結核菌이 腸을 犯한 것이다 대체로 滑便이고 심하면 瘰泄이 되며 便에 粘液 血液 肓汁이 섞여 나오기도 하고 症狀이 一定하지 않고 腹痛과 熱이 있고 虛勞 裏急症 等이 있고 肺結核 末期 생기는 경우가 많다.

〈用藥〉

- 胃關煎 • 六味地黃湯 • 左歸飲 • 牡丹皮散
- 마늘을 많이 구워서 먹고 治療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13. 盲腸炎(蟲樣突起炎)

盲腸에 炎症이 생겨 右下腹刺痛 發熱 惡心嘔吐를 伴하는 수도 있고 生理的 違和 感氣 其他 疾患으로 因하여 發病하거나 虛弱으로 抵抗力이 감퇴된 때 또는 飲食失攝 肥濕한 虛弱者에게 發病한다.

急性과 慢性으로 區分한다.

■ 痘名別 胃腸病

(1) 急性盲腸炎 : 痛症이 심한 경우는 手術治療하는 것이 마땅하다

〈用藥〉

- ① 热이 심하고 小便赤澁 不利할 때는 大分清飲, 四苓散
- ② 大便不通 高熱일 때는 桃仁承氣湯, 玉燭散
- ③ 表裏에 热이 있어 汗下를 해야 할 때는 大柴胡湯

(2) 慢性盲腸炎 : 热이 심하지 않고 痛症이 가볍고 發病한지 時日이 경과된 경우로 韓方治療는 주로 慢性의 경우가 많다.

〈用藥〉

- 敗醬湯 • 六味地黃湯 加 小茴香 破故紙 肉桂 荊芥 防風 各4g • 六味排膿散

〈참고〉

- 胃病治方 趙憲泳著
- 韓醫師 시험준비서 石履慶著

(학술위원 · 경남 김해시 전하동 43-12 세종당한약방 ☎ 0525-336-4664)

● 상식 메모

補瀉 先後

病에 先虛後實한 사람은 반드시 先補後瀉하고 先實後虛한 사람은 先瀉後補해야 한다.

- 吳又可 -